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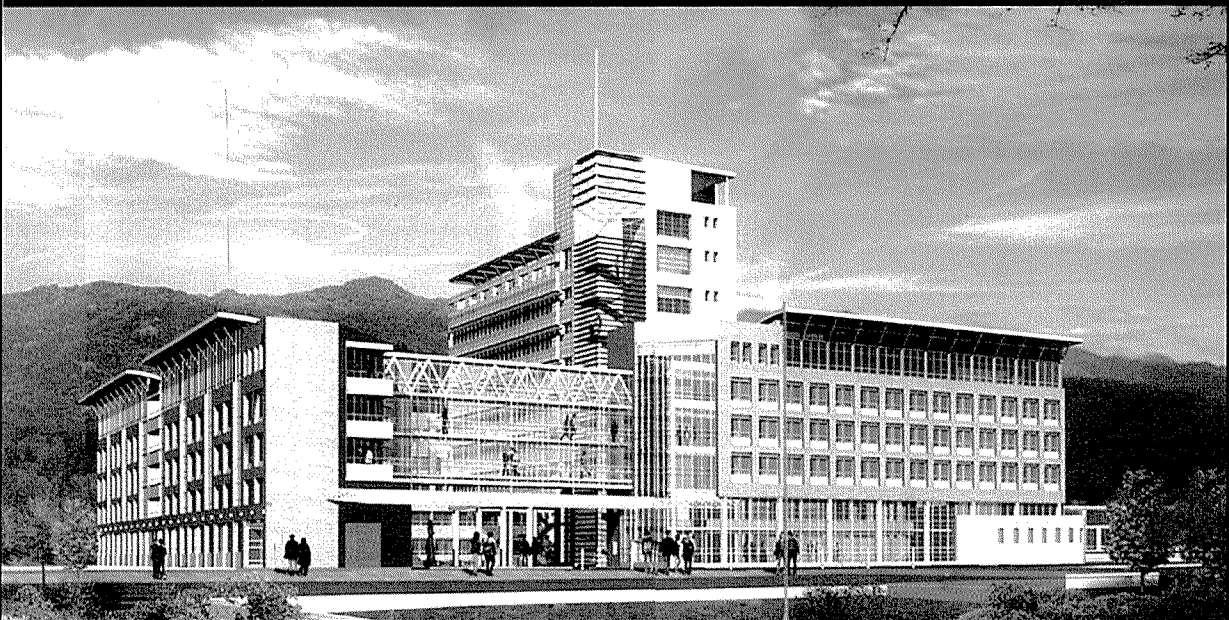
금오공과대학교 제3대학

Kumoh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The 3rd College Building

서기영 /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Suh Ki-Young

금오공과대학은 구미 시내에 있는 현재의 캠퍼스를 교외로 이전하기 위하여 시내를 벗어난 야트막한 야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장소에 신캠퍼스를 건설 중에 있다. 제3대학건물은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제1대학, 제2대학, 도서관 및 학생회관에 이어 네 번째 터키현상으로 진행된 연면적 약 8000평 규모의 프로젝트이다. 두 개의 학부와 대학본부의 기능을 일부 수용하도록 되어있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당시의 조금은 긴장되고 다소 당혹스럽기도 했던 묘한 기분을 지금도 기억한다. 금오공대 제3대학은 그룹원 설계사무소와 공동으로 작업한 두 번째 작품으로 그 얼마 전 그룹원 내에 새로이 조직된 설계팀을 이끌고 처음으로 얼떨결에 참여했던 것이 "한라대학교 기숙사 현상설계"이며, 여기에서 당선된 것이 이 팀에 있어서는 그때까지의 유일한 실적이었던 것이다. 우리 나름으로는 우수한 멤버들로 설계팀을 짜고, 훌륭한 분들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여러 참여자들간의 의견조율방법과 설계진행의 독특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남다른 모습을 갖추고자 제법 애썼으나 그 시점에 터키현상에 뛰어든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무리한 일인 것만 같았고, 참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끈질긴 노력과 우여곡절 끝에 다소의 운도 작용하여 이 신생팀이 국내 메이저급 설계사무소들과 어깨를 나란히 터키현상에서 경합을 벌이게 된 것이다.



턴키의 특성상 유명세나 이렇다 할 실적이 없었던 우리들로서는 현상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기적적인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되었다. 일반 현상과는 달리 턴키에 있어서는 설계사무소의 역할이 전체의 일부이기기는 하지만 시공사로서는 파트너가 될 설계사무소를 정하는 것이 당락을 좌우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만큼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계팀이 느끼는 책임감과 부담은 일반 현상보다 훨씬 크다고도 할 수 있다.

많은 것을 새로 배워야 했고, 경험부족에서 오는 이런 저런 실수도 많았지만 진행과정 도처에서 익숙지 못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궁리해야 했고, 매번 우리들로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만 했던 점은 참신함에 있어서 오히려 타성에 빠지기 쉬운 경험이 풍부한 팀들 보다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 같기도 하다. 근소한 차이이기기는 했지만 시공사와 힘을 합쳐 경쟁 상대를 물리치고 당선되었을 때 우리는 다 같이 또 한번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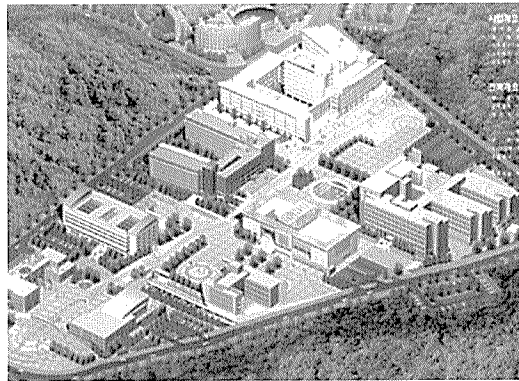
제3대학 설계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주어진 부지의 위치는 썩 흡족하다고 만은 할 수 없는 캠퍼스 마스터플랜에 의하여(대학 당국의 담당자들도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정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캠퍼스 외곽순환도로 내 제일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진입 방향뿐만 아니라 후방과 측면에서도 후문, 기숙사, 대운동장으로부터의 동선이 집결되는 동선 처리가 매우 까다로운 장소이다. 또한 3면이 주요 도로에 면하여 있고, 나머지 한 면은 주진입 방향을 향하고 있으므로 해서 4면 모두 비슷한 정도의 정면성을 요구하므로 어느 한 방향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독특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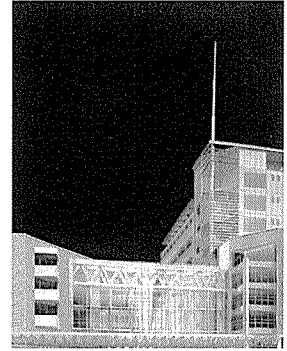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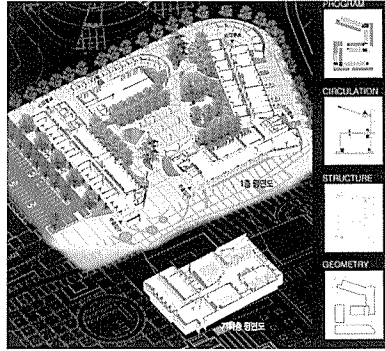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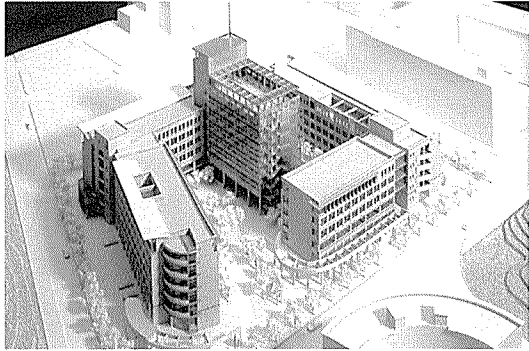
배치개념은 “토목환경 및 건축공학부”와 “신소재 시스템 공학부”(전공의 명칭조차 절대로 양보하는 일이 없는 대학들의 흥미로운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대목이다)를 각기 독립적으로 분리수용하고, 후방으로부터 캠퍼스 중심으로 이

어지는 중정을 통한 대각선 동선을 마련하기 위하여 “L”과 “U”의 두 mass가 합쳐진, 벌어진 “O”자형 배치를 취하였고, 여기에 두 학부의 공동시설들을 중앙에 타워 형태로 끼워 두 wings을 연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E”자형 배치를 하게 되었다. 타워부분은 피로티로 띄워 지상레벨에 중정을 확보하였고, 이 부분에 야외무대, 연못, 선큰기둥, 조경 등의 적극적인 처리를 가해 캠퍼스 전체적으로 부족한 외부공간의 만회를 시도하였다. - 지금까지 몇 몇 건물들이 구체적으로 설계되면서 차츰 개선되어 가고 있기는 하나 현재의 캠퍼스 마스터플랜상에는 전체적으로 외부공간에 대한 배려가 매우 결여되어 있으며, 특히 구심점이 되는 중심적 외부공간의 부재는 중대한 결함으로 지적될 만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외관 디자인에 있어서 건물의 저층부는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주변 콘텍스트에 조화되는 분위기를 갖도록 하였으나 타워부분만큼은 모든 곳에서 울려다 보이는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특성을 살려 높이를 강조하고 눈에 띄는 모습으로 캠퍼스를 대표하는 상징적 역할을 맡게 하였다. 아울러 높은 부분에 옥상정원, 교강사휴게실 등 적절한 시설들을 배치하여 후방으로 낙동강이 넘겨다 보이는 장점을 활용토록 하였다. 이 부분의 높이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높이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 어중간한 높이가 되고만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타워부분의 특징적인 이미지를 위하여 재료 및 형태를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자극적인 High-Tech성향의 디자인으로 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경제적인 측면, 유지관리의 문제 등 학교건물이라는 실정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들의 압박에 의해 어느 정도 선에서 현재와 같이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미련이 남는 부분이다.

평면계획에 있어서는 각각의 기능과 여러 사용자 집단간의 적절한 연계 및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시도하였고, 전공별로 실험실, 교수실, 대학원연구실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달리하는 등 실제 이용자들의 요구를 가능한 한 수용하기 위하여





정보수집, 사례연구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그밖에 휴게 공간, 여유공간 등을 넉넉히 확보하면서 미래의 내부기능 변화, 규모확장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하고자 애썼다.

이 프로젝트가 턴키에 참여했던 첫 번째 작품이었던 만큼 기억에 남는 부분도 많고 그 후 우리들의 행보에 영향을 끼친 점도 많다. 만약에 실패하였더라면 지금의 설계팀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못하였을지도 모르지만 다행히 당선되어 모두들 용기를 가지고 다음 기회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것도 사실이다. 새 설계팀을 가동한지 2년여의 짧은 기간동안 다수의 현상설계와 턴키에 참여하여 꽤 좋은 성적을 올리며 높은 승률을 쌓아 이제는 턴키에 있어서도 지명도가 없지않은 많은 설계팀으로 위상이 끌어 올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턴키 현상을 할 때면 언제나 현실성에 지나치게 얽매고 건축외적인 일들에 필요 이상으로 시달리는 그 복잡하고 어수선한 진행과정을 겪으면서 다른 설계 작업 때와는 달리 마음 한구석에 웬지 건축가로서 정도를 벗어나 외도를 하고

있는 듯한 걸끄러운 느낌을 갖게되는 것은 나만의 동떨어진 생각일까? ▣

사업 개요

공사명 금오공과대학교 제3대학 신축공사
 위치 경상북도 구미시 거의동 산23번지 일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660,000.00(199.650 평)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40일

건축 개요

규모 지하1층, 지상9층
 건축면적 4,828.71(1,640.68 평)
 연면적 지하 1,581.51(478.41 평)
 지상 25,423.18(7,690.51 평)
 계 27,004.69(8,168.92 평)
 구조 철근콘크리트 + 철골조
 주요외장재 적벽돌 처장쌓기 + 알루미늄쉬트 + 투명복층유리
 수용학과 2개학부 9개과 토목환경 및 건축공학부 : 4개과
 신소재 시스템공학부 : 5개과
 수용시설 대학본부, 강의실, 교수실, 대학원연구실, 실험실동
 설계(턴키) 서기영 + 그룹원 + 현대산업개발

